

## 마나르 선생님이 들려주는 팔레스타인 이야기

마나르 선생님은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입니다. 요르단에서 영어-한국어를 전공했고, 대학 1학년 때 코이카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했던 인연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에게 소중한 것은요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있어 올리브나무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올리브나무는 땅과 농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지역에는 올리브 열매로 만든 음식이 많은데, 올리브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저도 요르단에 다녀올 때마다 올리브는 꼭 가지고 올 정도로 올리브를 좋아하는답니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스카프를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녀요. 구피아(Kufiya)라고 부르는 스카프는 나라마다 즐겨쓰는 색이 달라요. 팔레스타인에서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스카프를 두르고, 요르단에서는 붉은색 스카프를 주로 합니다.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고, 붉은 색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 팔레스타인의 가족, 남과 여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부모님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무슬림들에게 형제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친 가족이 아닌 이웃들과 형제와 같이 음식도 같이 해 먹고, 아이도 같이 키우는 일이 많답니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랍지역에서 여자의 역할은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니다. 여성은 집을 돌보고, 남성은 밖에서 돈을 버는 역할을 하는 전통적 성역할을 주로 따르고 있지요.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예전과는 달리 맞벌이 하는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을 많이 못 받는 형편이지만, 아랍지역의 다른 몇몇 나라들에서는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해요. 아랍지역의 여성들은 결혼을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요르단으로 돌아가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연애를 금하고 있지만, 부모님만 이해해 주시면 저는 가능하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 우리 음식과 옷차림은요

아랍에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특히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인접한 나라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은 비슷한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양고기와 빵을 많이 먹습니다. 명절 때는 마클로바 (maqluba)라는 음식을 먹어요. 마클로바는 '뒤집혀졌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고기와 쌀, 볶은 야채를 섞어 그릇에 담은 뒤 이것을 한번에 뒤집어 담아서 먹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도 마클로바를 먹긴 하지만, 명절에 꼭 이것을 먹지요.

웁은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지만, 톱(tob)이라고 부르는 옷은 특별한 날에 주로 입는 전통옷이에요.

한복이 한국의 전통옷이지만,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전통옷은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 같은 특별한 날에 많이 입지요. 할머니들은 평소에도 자주 입으시는 것 같지만요.



## 명절

우리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라마단과 피트르입니다. 라마단은 이슬람 달력으로 9월 한달간 매일 해 뜨는 시간에서 해 지는 시간까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며 철저히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피트르는 라마단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3일간을 말하는데,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주고 받으며 축제를 즐기지요. 피트르 때는 아침에 기도하고, 그때만 특별히 만드는 과자와 같이 만들어 나누어 먹고요, 또 아이들은 이때 새 옷을 사서 입고, 부모님께 명절인사를 드리기도 해요. 또 라마단이 끝나고 2달 후를 아드하 명절이라 부르는데 이때는 피트르 때와 비슷하게 지내지만 양고기를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해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라마단을 꼭 지키면서 절제된 생활과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기본 규칙은 잘 지키면서 피트르 명절 때는 맛있는 것 잘 챙겨먹고 친구들과 명절의 기분으로 밖에서 재미있게 놀기도 한답니다.



## 주거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산 적은 없기 때문에 요르단의 주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파트에 주로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대부분 주택에 살고 있어요. 특히 정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정원을 포함해서 집 안팎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 팔레스타인의 어린이

아랍아이들은 다른 나라 어린이들처럼 서구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팔레스타인은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유년기, 청소년기에 중요한 교육의 자유와 그 공간이 잘 허락되지 않고 있어요. 교육열이 높은 한국과 비교하면 특히 더 그렇지요.

요르단에서는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유치원을 다니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2시 정도에 집에 오는데, 학교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아 학교에 오래 머물기 보다 집으로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지금 요르단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영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턴 영어와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아랍지역의 몇몇 산유국과는 달리 요르단은 석유가 없어 자원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요.



## 팔레스타인의 현대문화와 '한잘라'

아랍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슬람문화권이라는 점이 특징적이예요. 현대에 와서도 그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팔레스타인의 현대문화 중 새로운 것인 '한잘라(handalla)' 라는 캐릭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한잘라는 풍자 만화가 Naji의 작품에 등장하는 유명한 캐릭터 이름이에요. 한잘라라는 10살 먹은 소년이 자기가 살던 마을을 뒷짐을 진채 뒷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예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외세의 개입에 저항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한잘라의 허름한 누더기 옷과 맨발은 그가 매우 가난한 형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국인 팔레스타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조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나이를 먹지 않는 모습 자체를 나타내고자 이 작가는 한질라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한질라 캐릭터는 인기가 아주 많아, 이 캐릭터로 악세서리를 만들어 상품으로 내놓았을 정도로 유명하답니다. 아마 아랍사람들에게 이 캐릭터를 보여주시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걸요?



### 우리에게 의미있는 색깔

우리는 흰색이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녹색은 농업을 상징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이에요. 빨간색은 주의해야 할 것을 표시할 때 쓰고 있습니다.



### 한국생활, 좋은 점과 힘든 점

한국은 교통이 편하고 여러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아요.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싶을 정도로 한국생활이 정말 좋지만, 힘든 일도 있어요. 무슬림은 돼지고기와 술을 금기시 하는데,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할 때 돼지고기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매운 것은 잘 먹기 때문에 찌개종류도 잘 먹곤 하는데, 무슬림으로서 꼭 피해야 하는 술과 돼지고기를 권할 때면 곤란한 기분이 많이 들지요.

한국에 와서 사는 아랍인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여전히 한국에서는 아랍사람을 낯설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문화나 아랍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 기분이 좋고, 제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현재 팔레스타인은 분쟁중이기 때문에 특히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갖고 계신 사람을 만나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지요.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아랍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가 너무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랍의 모든 지역이 사막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산유국은 몇몇 나라일 뿐인데도 요르단에서 왔다는 이유로 부자나라에서 왔다고 신기해 하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요르단에 차가 있냐고 묻기도 하셨고요. 아랍지역은 지역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범위가 넓어서 아랍의 24개국 모두를 다 알긴 어렵겠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요.